

캠틱, ‘2024 청년도전 지원사업’ 완료

“니트족에 재기 햇살”... 전북 청년 일자리 메카로 발돋움

전주 캠틱종합기술원(이하 캠틱)은 26일 익산·완주 지역의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에 발돋움했다.

캠틱종합기술원(이하 캠틱)은 26일 익산·완주 지역의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에 발돋움했다. 2024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손을 잡고 진행한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와 직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중점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정책이다. 주 대상은 이른바 니트족, 일할 의지가 없고 교육·고용·훈련 등을 거부하는 구직 단념자들이다. 코로나 등 내외부적 환경으로 외부와의 소통을 꺼리며 은둔·참거해 온 청년들이다.

캠틱은 이들에게 도전정신 심어주고 문밖에서 나와 사회활동 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사회성을 길러주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 마련했다.

5주, 15주, 25주 과정을 마련하고 자가 진단과 멘토링 요가와 필라테스, 자신감 회복 훈련, 대인관계 강좌 등



다양한 클래스를 진행했다. 직업 및 면접 실무 교육과 금융·노동법·등 전문 강의도 진행했다. 이 결과 수료생의 45% 가까운 116명이 취업, 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 및 사회활동을 진행 중이다.

A(32)씨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대학 졸업 무렵 코로나가 터지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비대면 수업으로 어영부영 시간을 보낸 탓인지 취업시험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다. 무기력

증과 PC방 게임 등에 빠져 점차 문밖 출입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세상과 고립돼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A씨는 주변의 권유로 지난 2월부터 캠틱이 진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상담과 멘토링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하고, 같은 반 동료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공

에는 중소기업에 직장도 잡았다. A씨는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미룰 수 없는 현실을 접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도전사업을 추천하고 싶다. 이제 두려움 대신 기대감으로 미래를 바라본다”고 말했다.

실무를 지휘한 캠틱 유지연 책임연구원은 “사실 이 사업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부터 힘들었다. 은둔 청년들을 세상으로 끄집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 버스 정류장 등을 발로 누비며 홍보하고 영화관·게임방으로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는 등 정성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캠틱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에서도 성과를 발휘했다. 지난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3명의 청년들을 선발해 기업·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직무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경험과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8주 280만원의 수당도 지급한다.

캠틱 노상훈 원장은 “지역 젊은이들이 지역 사회를 이끄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2025년에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임근홍)는 2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전북도 최병관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응원”

전건협 전북, 전북자치도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임근홍)는 2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전북도 최병관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

임근홍 회장은 “보다 잘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관영 도지사님과 이화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내 3천여 전문건설업체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응원하며 더욱 응비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길 기원한다”며 인사의 말을 했다.

이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 정책과 제도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강구로 전문건설업을 보호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

리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형건설현장에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병관 행정부지사도 도내에 시행되는 대형건설현장의 하도급 현황 검토 및 점검 등 지역 건설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성금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한 후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는 지역과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이어가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물품지원 및 성금을 전달하는 등 이웃돕기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기업사랑 도민회, 고창 선운산 힐링산행 자연보호 캠페인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사랑 도민회(회장 윤방섭)는 지난 23일 고창 선운산에서 힐링 산행 한바탕 자연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우리 고장 자연을 보호하려는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 이번 행사에는 회원업체 대표와 가족 70여명이 참여하여 선운산 인근 오물수거와 자연을 보호하려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름다운 동행과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실천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행사에는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과 (주)창해에탄올, 감초가, 베리핀등이 후원업체로 참여하여 행사를 지원하였다.

행사가 끝난후에는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회원기업 소개와 장기자랑, 회원기업홍보, 도민회 사업소개 시간을 가졌다. /김옥기 기자

‘中企 신사업 창출’... 전기안전공사, 인근 공공기관과 협약

특허나눔 등 사업으로 민간기업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하영)는 26일 오전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공기술 사업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기술이전 활성화 등을 목표로 진행했다.

기관별로 △전기안전공사와 △국토정보공사가 ‘기술이전·지원’을 맡기로 했고, △연구개발재단이 ‘기업매칭·판달’을 △국민연금공단이 ‘공공

데이터 제공’을 담당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현재 약 240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요 기업에게 특허를 무료로 이전하는 ‘특허나눔’ 등을 추진 중이다. 이달 기준 총 10건의 특허를 민간 기업에 무료 이전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앞으로도 기술의 개발과 지원 등을 통해 공공기술 기반 민간기업 사업화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하영 사장은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해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지역 공공기관이 지역 창업생태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한전 군산지사,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진행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구민모)는 연말을 맞아 26일 관내 소외계층을 찾아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구민모 지사장을 비롯한 한전 군산지사 직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10가구에 김장김치 10kg씩을 직접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사 직원들의 급여에서 조성된 러브펀드 기금을 통

해 마련되었으며, 사회적 기업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구매함으로써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준다.

구민모 군산지사는 “어려운 이웃들에 온정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농어촌공, 호우·대설 등 대비 안전관리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11월말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고, 27일부터 찬 공기가 하강하면서 기온이 5~10℃ 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보지역 중심으로 재난대응시설을 긴급점검하는 등 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본부는 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낙엽 등 이물질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 정비를 강화하고, 사업현장 및 공사현장 시설물 위험이 예상될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 복구 장비 등 지원체계를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재해취약시설의 시설점검과 공사현장 시설물 결속 등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 활동 강화 및 시설물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 대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정문 본부장은 “겨울철 예측하지 못한 폭설, 기상적인 추위로 사고 발생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집중관리해서 재난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